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민주당 손학규 대표

■ 손학규는 누구

경기지사 77만개 일자리 창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0년대 서울대 재학 중 반독재 투쟁을 했던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유신 체제 종식 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3년 당시 전방위로 진행되던 문민개혁을 돕기 위해 광명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된 뒤 그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으며 당내 소장개혁파의 리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특히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외자유치에 주력, 7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100일 대장정’ 대선후보 경선



손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100일 민심 대장정’을 하며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한나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당을 결행, 구여권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했다. 그러나 취약한 조직 기반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2008년 초 대선 참패의 상처로 허덕이던 당에 구원투수로 투입, 과도기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본인은 서울 종로에서 패배하고 춘천으로 내려가 2년여 침묵했다.

분당을 보선 출마 승리



손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격적으로 전당대회에 나서 조직 열세라는 슬한 불리함을 이겨내고 민주당 대표가 됐으며 지난 4월 민주당 후보에 계는 ‘지옥’으로 평가되던 성남 분당구에 출마, 승리를 거머쥐며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12월 통합기구 구성, 총선은 통합정당으로 치른다”

내년에 치러질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권에는 통합이라는 화두가 놓여져 있다. 한나라당과의 1:1 구도를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대선에서 정권탈환에 나서려는 것이다. 당장, 10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단일 후보 선출 등을 둘러싸고 야권통합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대회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 정과동맹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 검토해야 할 것이 많지만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타 야당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통합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선이 다른 정당 간의 통합은 선거를 위한 ‘가설

대통합 시대적 의무·DJ 유훈

나부터 기득권 버리고 희생

민주당이 희생해야 하지만

호남에만 양보요구 안할 것

중도·진보 당내 갈등은

‘민생우선’ 앞에 무의미

정당’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선거를 위한 가설정당 성격이라면 이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겠다. 시대적 큰 흐름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양당제의 구도다. 물론 노선과 정책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민주, 민생, 평화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 야권은 이미 노동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펼쳐왔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와 신뢰는 통합정당 당의 탄생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통합보다는 연대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합은 비현실적이고 연대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연대를 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연대보다는 통합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 이전의 6·2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연대를 하지 못했다. 결국 대통합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서는 대통합보다는 선거 연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통합이 논의된다고 해도 공천과 지분을 놓고 상당한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야권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합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다.

광주일보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소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와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야권통합의 길을 물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다음 날인 25일 집무실인 국회의원 회관 301호실에서 만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표정은 밝았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손 대표는 시대적 의무와 책임 등을 거론하며 야권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손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며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진지하게 야권통합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다.

-야권통합의 의미와 가치는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은 승자독식으로 대변되는 특권과 반칙의 사회,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부자 중심의 정치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권이 힘을 합쳐 의회 권력과 정권을 교체하라는 것이다. 대통합은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의무 책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하나로 통치 정권을 교체하라’는 유훈을 남겼다. -야권통합의 성사 가능성은. ▲낙관적이다. 시대적 요구며 정권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년의 정권교체는 우리 역사상 제대로 가느냐, 퇴행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 같은 절박성이 대통합을 명명하는 것이다. -타 야당에서는 진보정당 간의 ‘통합’을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대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런 정도의 진보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미 야권통합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야권의 공동 대응 등으로 통합의 분위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 민노당이 국민참여당과 합당을 논의하면서 민주당과는 뜻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대통합을 견인할 복안은. ▲민주당부터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지난 4·27 순천 및 김해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내부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연대와 미래의 통합을 위해 희생을 결단했다. 이러한 양보와 희생의 결단이 대통합을 위한 민주당의 자세며 정신이다. -야권통합을 위해 민주당의 눈과 팔도 내놓겠다고 했다. 호남의 양보를 말하는 건가. ▲특정 지역과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밝힌 것이며 타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 말이다. 호남을 넘어 전국을 같이 놓고 그 기준을 만들 것이다. 통합 정신을 갖고 임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대통합의 시기와 이를 위한 통합전당대회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 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통합 정당으로 치러져야 한다. 적어도 12월까지의 구체적 통합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통합 결의를 하는 전당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Advertisement for solar panel installation. It includes a diagram of a solar system, a table of costs, and promotional text. The table lists various system sizes (8kW to 30kW) and their corresponding installation and connection fees. A large red starburst graphic says '보조 50% 확정' (50% subsidy confirmed). The text encourages homeowners to take advantage of the government's solar panel subsidy program.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주)동성애어텍 ☎062-512-1180/ H.P 011-659-7001

Advertisement for '21년 가발 명가' (21-year hairpiece expert). It features three portraits of men, likely the founders or experts, and a large graphic showing a price of 70,000 won. The text promotes high-quality hairpieces and service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store in Gwangju, mentioning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Direct treatment by master technician) and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Closed on Tuesdays, normal operation on Sundays).